

제2장

부문별 성과와 전망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제2절 경제과학 행정

제3절 관광문화 행정

제4절 복지여성 행정

제5절 농림 행정

제6절 해양수산환경 행정

제7절 건설방재 행정

제8절 소방 행정

제9절 일반 행정

제 1 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1. 투자유치 여건 조성
2.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4.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추진

제1절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행정

1. 투자유치 여건 조성

1-1. 투자유치 총력 추진체제 구축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2008년 8월 투자정책관에서 투자정책국(3과, 1사업소, 14담당)으로 확대 개편되어 업무 추진력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투자정책국은 투자유치의 전반적인 지원과 조율 및 전략투자사업 발굴을 담당하는 투자기획과,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추진과 「무안기업도시」 건설지원을 담당하는 기업도시과 그리고 국내·외기업 유치활동과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유치과의 3개 과로 편성되어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선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전남의 투자유치 핵심 국이 되었다.



투자정책국 국장 송영중, 투자기획과장 박창훈,
기업도시과장 박은호, 기업유치과장 고영윤

1-2. 민간차원의 투자유치 자문 협력

가.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전라남도 투자유치협의회(위원장 행정부지사) 회의를 4회 개최하였다. 2월에 투자유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규칙 개정안 심의를 3월에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7월에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 그리고 12월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관리 계획 및 입주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서면심의하였다.

나. 투자유치 전문위원회 운영

투자유치 관련 도정정책 개발·평가에 대한 사항과 경제살리기 혁신에 관한 정책발굴 및 대안 검토를 위해 구성된 전남발전정책자문위원회의 투자유치전문위원회(위원장 박성수 교수)를 13회 개최하였다.

다.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 65명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정기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받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활동적인 투자유치 자문관들과 공동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라. 투자유치보좌관 운영

민간기업(금융감독원 1명, 삼성전자 1명)의 투자유치전문가를 「투자유치보좌관」으로 위촉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및 경영마인드를 공식사회에 파급시키고, 국내외 투자유치 정보 수집,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성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를 운영하였다.



투자기획과 과장 박창훈, 투자기획담당 조재운,
중북부권담당 박현창, 동남부권담당 정병선,
서남부권담당 백광수, 조선타운담당 한병선,
경제유구역담당 송경일

1-3. 투자유치 업무능력 배양

道 산하 전공무원의 투자유치 요원화로 투자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 투자유치 과정을 운영(15과정 1,384명)과 실·국원 공무원 대상 경제관련 포럼을 2회 개최하였다. 道 및 시군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합동 관광투자설명회, 미국·중국 순방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실로써 道 및 시군 공동 투자협약을 작년에 81건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추진상황 점검과 정보교환을 위해 道 실·국원 및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군추 추진상황 보고회를 워크숍 형식으로 3회 개최하고 투자유치 우수 사례 발표와 투자 상담기법 및 인센티브 교육·정보교환을 하였다.



투자기획과 과장 박창훈, 투자기획담당 조재윤,
중북부권담당 박현창, 동남부권담당 정병선,
서남부권담당 백광수, 조선타운담당 한병선,
경제유구역담당 송경일

1-4. 투자유치 보조금 및 기반시설비 지원

수도권, 영남권 등 기업의 투자를 유인 할 수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창업투자보조금을 21개소 6,78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투자기업이 입주하는데 애로가 있는 기반시설 개선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촉진을 조성하고 있다. 2008년도 5개소에 1,87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투자기획과 과장 박창훈, 투자기획담당 조재윤,
중북부권담당 박현창, 동남부권담당 정병선,
서남부권담당 백광수, 조선타운담당 한병선,
경제유구역담당 송경일

1-5.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광고

홍보물은 전남에 대한 일반 투자환경과 투자유치 업종, 지역에 따라 동영상, PPT, 브로슈어 등 25종을 신규 제작하거나 기존에 제작된 각종 홍보물을 Up-Grade하여 각종 투자 설명회시 활용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남의 투자환경을 홍보하였다. 비교우위의 자연자원,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환경 등 전남이 투자 매력지임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2008. 4월부터 2009. 1월까지(1일 1회) 진행된 TV 광고와 2008. 5월부터 7월까지(월 310회) 외국송신 TV 광고를, 그리고 주요일간지 신문광고 및 케이블 TV 광고를 하였다.

나.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 투자 설명회

2008. 7. 3 서울 COEX에서 16개 광역시·도,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관계부처, 경제단체, 지자체 및 주요 기업인 등 3,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도는 투자설명회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참가자들의 큰 주목을 끌기도 했다.

특히, 이날 우리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체는 12건에 달하고 총 9조 6,555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내었으며 우리 도가 설치 운영한 전시·상담부스에는 천여 명이 방문했고 그중 50여명의 기업인과 투자상담을 진행했으며 총 22개사에 이르는 투자의향 기업을 발굴했다.



투자기획과 과장 박창훈, 투자기획담당 조재윤,
중북부권담당 박현창, 동남부권담당 정병선,
서남부권담당 백광수, 조선타운담당 한병선,
경제유구역담당 송경일

1-6.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구체화 실현

대상 지역이 목포·무안·신안 및 영암·해남·진도 일부지역에 이르는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시행이 2008. 9월에 확정됨에 따라 2008. 12월 신발전지역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마치고 서남권 신발전종합계획 및 종합발전구역 지정고시가 12월 말에 확정되었다.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기반조성('08~'10)⇒투자유인('11~'15)⇒투자활성화('16~'20)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서남권 신발전 지역에 2020년 인구 60만명 규모의 자족형 중핵도시가 갖추어질 전망이다.



투자기획과 과장 박창훈, 투자기획담당 조재윤,
중북부권담당 박현창, 동남부권담당 정병선,
서남부권담당 백광수, 조선타운담당 한병선,
경제유구역담당 송경일

1-7. 전남조선타운 조성사업

신안군 압해면과 고흥군 도양읍 일원에 총 면적 1,638만㎡, 총 투자비 2조 9,760억원 규모의 조선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7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20여개 투자참여 업체가 투자협약이 되었고, 2008년 신안과 고흥에 각각 3월과 10월에 개발사업 추진 전담 법인(SPC)이 설립되었다. 향후 일반산업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며, 고용 4만명과 생산효과 8조 2천억원을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기획과 과장 박창훈, 투자기획담당 조재윤,
중북부권담당 박현창, 동남부권담당 정병선,
서남부권담당 백광수, 조선타운담당 한병선,
경제유구역담당 송경일

2.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2-1. 타깃기업 선정 집중 공략

민선 3기 이후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발굴한 투자유치 대상기업의 투자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집중적·지속적으로 교섭 활동을 펼쳤다.

기업유치 전담조직 및 잠재 타깃기업에 대한 지역·업종별 유치 전략 추진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유치에 있어 큰 성과 거양하였다. 그 결과 국내기업 유치 분야에 있어서 투자설명회 2회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31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고 투자금액은 2조 9,149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였다. 또 외투기업 유치 분야에서는 투자설명회 5회를 실시하고 17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3,300억원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특히 우리 도 핵심전략산업 및 지역원자재 활용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 집중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4개 기업(파이런솔라, 이노에너지, 한국실리콘, HQMC)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었고 식품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해진식품 등 10개 기업과의 투자협약을 성사시켰다.

2-2. 국내 투자유치 활동 전개

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CEO) 초청 설명회

2008. 4. 16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와 합동으로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교사절 등 60여명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남도가 새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정책기조에 맞춰 지방차원에서 외투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와 전략 산업별 기업을 초청, 개최하였다.

이날 투자설명회에 앞서 전남도와 EUCCK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우리 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품질 높은 투자정보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EUCCK와 외국 현지사무소를 활용, 현지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의 기업투자계획 및 해외 투자정보를 제공받아 투자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길을 열게 되었다.

나. 부동산투자가 초청 설명회

2008. 10. 28 영암 호텔현대에서 세계 3대 부동산 개발투자사인 프랑스 Bouyges Construction and Dragages 그룹 대표 및 EUCCK 회원사 대표 등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동산투자가 초청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우리도 주요 프로젝트 및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투자설명회를 가졌고 전라남도 주요 투자프로젝트 예정지(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에서 현지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번 부동산투자가 초청 설명회를 통해 세계 우수한 부동산 개발 투자사들에게 우리 도의 주요 프로젝트와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향후 잠재 투자처로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콜센터 투자유치 추진

IT 기술을 수반하는 지식서비스 업종으로 여성인력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 운영업체를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상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주)엠보이스텔레소프트와 (주)디에스커뮤니케이션즈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50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유치과 과장 고영운, 기업관리담당 김범수,
제조업유치담당 박화현, 서비스업유치담당 주상욱,
담당자 조영식, 이행권, 이상삼

2-3. 해외 투자유치 활동 전개

가.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지역 방문 투자상담 활동

2008. 4. 22~4. 24까지 중국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해 중국지역
방문 투자상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새 정부가 내세운 외국인 투
자유치 강화 정책기조에 맞춰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국 순방기간 동안 무안기업도시 내에 조성하고 있는 한중국제
산업단지에 투자하게 될 중국기업 5개 업체와 1억불의 투자합의서
(MOA)를 체결하였다.

주요 투자기업을 보면, 영창방지산집단유한공사는 위해시 해외경
제무역단지를, 산동호당가집단유한공사는 식품가공공장 및 물류단
지를, 산동석도신항항무고빈유한공사는 물류단지 및 수산물가공공
장설립을, 산동건인과기식품유한공사는 식품가공공장 및 연구센터
설치를, 산동위해국위석재유한공사는 호텔 및 서비스업에 투자하기
로 하고 투자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한중국제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위해시
금해만 호텔에서 위해지역의 글로벌 기업 등 60여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맞춤형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나. 투자유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미국지역 방문 투자상담 활동

2008. 5. 4~5. 14까지 투자유치 및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미국지역을 순방하여 투자협약(MOU) 1개사와 2개대학 및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기관 방문 3개기관, 잠재 투자가 발굴을 위해 11개사와 투자상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순방기간 동안 뉴욕에서 세계적 투자펀드기업인 “캡스톤”사와 3천만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미국 대학과의 협약을 추진해 미주리대와 농어촌 학생 무료 영어체험캠프 협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 내 세라믹 신소재 분야의 독보적 연구대학인 알프레드 대학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조성되는 Gloversity- Valley에 분교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물류, 부동산 개발, 바이오 의약, 아쿠아리움 설계 및 건축,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해 11개기업과 일대일 방문 투자상담을 전개하는 등 전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다. 투자유치를 위한 유럽지역 순방

2008. 9. 27~10. 3까지 우리 도의 투자여건과 주요 개발프로젝트, 전략산업을 현지 기업에게 소개하고 투자의향을 밝힌 바이오, 광학계측기생산기업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 수출·경제협력단, 독일 에르푸르트 상공회의소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양 지역 간 경제·통상·투자유치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사업 중 바이오 분야에서는 MND사와 뇌수막염, 조류독감, 거세포바이러스 진단키트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통한 제품개발 및 우리 지역내 생산공장 건설 등에 합의하였다.

바이오기업인 KAMEDIS사와는 우리 도에 소재한 바이오에프디 엔씨간의 공동연구를 통한 제품개발 및 우리 지역에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첨단 광학기기 및 분석·계측기 생산업체인 ANALYTIK JENA사와 아시아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우리 도를 최우선 후보지로 선정정한다는 계획에 합의하고, 현지 실사 등을 위한 전남도 방문의사를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KOTRA기능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IEICI(이스라엘 수출 및 국제협력단)과 잠재투자가 발굴·상담지원, 기업간 정보교류 및 진출지원에 합의하였고, 독일 IHK(튀링엔주 에르푸르트상공회의소)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의약·제약분야의 잠재투자가 발굴·연계, 경제통상분야 협력에 합의하였다.

라.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지역 순방

2008. 11. 18~19까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중국 광둥성 심천을 방문하여, 투자협약(MOU) 6개사, 업무협약 1개사,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3명,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설명회에 70개사가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 사업 중 한중 국제산업단지 개발에 심천일체의료집단유한공사, 심천화해과기개발유한공사, 홍콩 영화실업발전유한공사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에 광둥성백려아미용국제집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홍콩대통환구자원개발유한공사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한중국제산업단지 및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관련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상그리아호텔에서 심천지역의 글로벌기업과 한국기업 현지 법인 관계자 등 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마. 부동산 박람회 참가 투자유치 활동

새로운 투자처와 투자가를 발굴하기 위해 2007년부터 홍콩 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하여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무안기업도시, 섬개발 및 전남 조선타운 등 주요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으며, 많은 잠재 투자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홍콩부동산박람회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프랑스 칸느 부동산 박람회의 아시아 축소판으로 세계적인 투자자, 개발자 등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우리 도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무안기업도시, 섬 개발, 전남 조선타운 조성 등 주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PM이 직접 참여하여 1대1 투자 상담을 벌여 호평을 받았다. 박람회 기간중 투자상담에서는 200개의 투자자들이 전남 전시관을 찾아 많은 관심과 투자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전라남도지사는 폴 질크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2012여수엑스포와 F1 경주대회 등 전라남도의 주요 프로젝트와 국제행사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VIP 디너를 통한 세계 부동산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전남 세일즈를 나서 전남을 투자매력지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장 고영운, 외자유치1담당 소영호,
외자유치2담당 유현호, 담당자 이광동, 김우형

2-4.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관리

도내에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고 있는 애로·건의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는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도내에 투자하고 있는 80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도지사를 포함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회사별로 PM을 지정, 분기

별 1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언하거나 관련 부서를 통한 One-Stop 서비스를 지원, 애로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투기업에 대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음을 표명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로 대림산업, 한화석유화학, 휴켄스, 금호석유화학 등 사후관리 강화로 등에 대한 신규 또는 증액 투자를 이끌어 냈다.

2-5.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K(KOTRA)의 On-Line을 활용한 우리 도의 최신 투자환경과 투자정보를 수시 업데이트 제공하여 국내·외 기업인이 온라인망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정보 수집과 통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상해와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에 “전라남도 해외 통상사무소”를 운영하여 해외 투자유치 및 통상 교류활동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식경제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 EU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투자정보 입수 및 교환을 통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유치과 기업유치과장 고영운, 외자유치1담당 소영호,
외자유치2담당 유현호, 담당자 이광동, 김우형

3.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3-1.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수립사업 본격 시행

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여건

연평균 15℃의 온화한 해양성기후와 인근에 1,965개의 아름다운 섬, 6,419km에 이르는 세계적인 리아스식 해안선, 중국의 경제수도인 상하이와의 최근거리 등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은 2005년 8월 25일 정부로부터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7년 12월 삼호·구성·초송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신청하였다.

나. 개발 예정지내 간척지 양도·양수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예정지는 전체면적 87.9km² 중 간척지 부분이 74km²가 포함되어 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시범지역인 삼호·구성지구는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시범지역외 지역인 초송지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1년여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와 기나긴 논쟁은 결국 시범지역인 삼호·구성지구는 우선 추진하고 초송지구는 향후 사업타당성을 검증한 후 신청하기로 하였다.



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장 박은호, 기획총괄담당 김진하
담당자 강성운, 김호성, 강석수

3-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시행전담법인(SPC) 설립추진

가.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2006년 10월 투자유치 컨설팅협약을 체결한 후 투자가능기업을 파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Man To Man식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 2월 14일 미국계 기업 가이덕 코리아와 2,000억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You & Partners, 유토라이프, 미국 GDP, 사우디 FAL그룹, SPG사, 블루넷/월드라이트, 건원그룹, Lippo 그룹, 호주 Village Roadshow사 등을 상대로 중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말에 부동산구 사업자인 대한도시개발의 유동성 위기로 송천지구(15.5km²)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GS건설, 삼부토건, 한백R&C, 엘드건설, 시공테크, 서천건설, 래영건설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해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각종 건설 프로젝트와 통신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TrussNet 그룹 정보를 파악한 후 장조룡 아시아 총괄사장 일행을 초청하여 현지투어를 실시하였고, 대만 타이페이에 소재한 아시아본부를 방문하여 TrussNet 그룹 코린 타이 회장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결과 2008년 7월 4일 총투자금액 45억달러에 이르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2008년 3월 6일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광자원개발 투자설명회, 2008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 주관의 관광컨퍼런스, 2008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개발박람회에 참가하여 유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외에서는 2008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한 세계부동산 박람회와 2008년 11월 19일부터 2008년 11월 21일까지 홍콩투자유치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 및 금융회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투자유치 활동 전개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사업을 알리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나. 전담법인별 자본금 확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는 5개 전담법인이 5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게 된다. 5개 전담법인이 개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의거 도시조성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한다. 2008년말 기준으로 서남해안관광레저(주)는 14억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는 72억원, 썬카운티(주) 150억원, KAVO는 6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였다.

다. 탄소제로도시 건설 추진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도의 역점 사업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무안기업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3월 20일 도와,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목포대학교, 에너지관리공단, 7개 사업시행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무안기업도시 탄소제로도시 구현을 위한 산·학·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협약 체결 이후, 도에서는 목포대학교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각 지구 및 건물 등에 대한 탄소발생량과 탄소절감 목표치, 탄소제로도시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등 구체적 『전략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2008.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를 '생태문화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관광레저도시 도입시설 매뉴얼』 연구용역을 2009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전략마련 컨설팅 내용과 관광레저도시 도입

시설 매뉴얼 을 바탕으로 兩 기업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도시과 과장 박은호, 개발계획담당 김홍식
담당자 윤재광, 서영배, 정석

3-3.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수립 추진

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수립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자족적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경련컨소시엄과 전남 개발공사에서 2006년 2월부터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약 100km²의 면적을 대상으로 국내외 유수의 전문업체로 하여금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왔다.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개발구상(안)을 가지고 2007년 1월에 해남군 산이면사무소와 영암군 삼호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개발·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2007년 9월까지 서남해안레저(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대한도시개발(주), 썬카운티(주), KAVO(주) 등 5개의 법인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전담법인(SPC)별 개발구역과 면적(총면적 87.92km²)을 확정하고, 해외 용역사가 기 계획한 개발구상(안)을 토대로 SPC에서 구상하고 있는 관광레저시설들을 접목시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왔으며, 개발계획이 완료된 초송지구는 2007년 11월 27일, 삼호지구와 구성지구는 12월 26일에 <표 2-1>과 같이 해당 SPC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문화관광부에 개발구역지정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표 2-1> 개발구역지정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내역

지구별	개발면적 (km ²)	계획인구 (명)	도시조성비 (억원)	시행자(SPC)	승인신청일
삼호	9.20	10,000	4,996	서남해안레저(주)	'07.12.26
구성	21.87	25,000	8,740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07.12.26
초송	20.50	13,200	5,386	썬카운티(주)	'07.11.27

※ 부동산지구(대한도시개발), 삼포지구(KAVO)는 개발계획 수립중

서남해안레저(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삼호지구는 The CARE City(건강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허브단지, 에너지 체험시설, 영상 휴양단지, 테라피센터, 바이오 R&D단지, 골프장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성지구는 The Refresh Green City(녹색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테마파크, 월드푸드빌리지, 남도음식문화촌, 박물관, 바이오에너지파크, 시네마타운, 메디컬센터, 골프장 등을 개발하고,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등 골프장 운영 전문업체로 구성된 썬카운티(주)에서 계획하고 있는 초송지구는 The First Sun Lake City(호반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워터파크, 마리나클럽, 승마클럽, Wellness Resort, 테마박물관, 친환경 R&D연구센터, 아시아PGA본부, 골프장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3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공청회 및 마을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의 중앙부처 협의를 실시한 결과 농식품부의 간척지 협의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당초 2008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남도에서는 수차례 농식품부를 방문

하여 간척지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결국 전남도, 문체부, 농식품부와 BH 회의에서 대진수로를 경계로 하여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여 삼호·구성지구를 먼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대한도시개발(주)에서 추진하는 부동산지구는 SPC의 주 참여회사인 대주건설의 신용도 하락과 유동성 위기로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초송지구의 썬카운티(주)를 부동산지구로 옮겨서 개발하기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삼호·구성지구는 2009년 2월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4월중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2009년말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하여 2010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동산지구는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2009년도 4월중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여 2009. 12월까지 승인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성 검토 실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계획단계에서의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 모색 및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2006. 6월 착수하여 2007. 3월 준공하였다. 본 사전환경성검토서는 2007. 11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안 설정 및 초안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7. 11. 23~12. 12(20일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먼저 2007. 12월 3개 SPC지역(삼호, 구성, 초송지구) 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상에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하여 2008. 8. 19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본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 안정적인 지가관리 및 불법행위 사전 차단 추진

안정적인 지가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1차로 해남군 산이면 전 지역과 화원면 청용·금평·영호·성산리 지역 61.967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차로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업예정 인근 지역인 해남군 해남읍, 화산·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면 일원 457.65km²와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면 189.1km²까지 2차로 확대 지정하여 총면적 709.33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과다 지정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2006.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없고 지가 또한 안정적으로 조사되어 4회에 걸쳐 일부 해제를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사업이 확실히 되는 시점에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 불법토지형질변경, 수목식재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남군과 영암군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 기업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하여 월1회 이상도, 해남군 영암군이 합동으로 위법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거주하여 온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영농경작행위 등은 해당 군에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도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도시과 과장 박은호, 개발계획담당 김홍식
담당자 윤재광, 서영배, 정석

3-4. 향후 추진방향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삼호·구성지구에 대해서는 2009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실시계획을 수립·승인신청하여 2010년 상반기에는 1단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아직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부동·삼포 지구에 대해서도 2009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정부에 승인신청 한 후 2009년 하반기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을 수립,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도시기반공사 착공은 2010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5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개발이 완료되면 전남은 동아시아 최대의 관광레저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서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기업도시과 과장 박은호, 개발계획담당 김홍식
담당자 윤재광, 서영배, 정석

4.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추진

4-1. F1 대회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가. F1 대회 운영법인(KAVO)의 자본금 확충

월드컵,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인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전남 영암에서 개최하기로 확정('06. 10. 2)한 후 F1대회를 국가와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로 활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회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F1 대회는 막대한 국가적 경제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면서(공공성 측면), 동시에 올림픽·월드컵과 비교하여 상업적 성격(상업성 측면)도 갖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 참여함으로써 상호 호혜(win-win)할 수 있는 사업추진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F1 프로모터사와 공동으로 한국 F1 대회(Formula one Korea Grand Prix) 운영법인 KAVO (Korea Auto Valley Operation)를 설립하였다. ('06. 9. 13)

초기 수권자본금 200억원, 설립자본금 75억원으로 설립된 대회운영법인인 KAVO는 대회 개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5월 SK건설(주),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등 대기업과 제 1금융권이 F1 사업에 참여하는 F1 투자협약식을 체결하고 2008년 7월 자기자본금을 600억원으로 확충하여 F1 대회 개최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를 완성하였다.

현재 대회운영법인인 KAVO는 SK건설(주)을 주 시공사로 선정하여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 될 F1 경주장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회 안전 및 운영 방안 마련, F1 대회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한국 최초의 F1 드라이버 육성 등 제반 대회 개최 준비를 계획대로 추진해가고 있다.

나. 「F1 대회지원법」 제정 추진

F1 대회가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이벤트로 분류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행사와 달리 7년(이후 연장개최 가능) 이상 개최되는 대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F1 대회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원 확보를 통해 F1 대회를 전국가적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 「F1대회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F1대회지원법(안)」은 2008년 6월 성안되어 8월까지 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 8월 25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하여 여·야 의원을 망라한 국회의원 79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8년 9월 8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법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2008년 11월 13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F1대회지원법」 제정을 위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F1대회지원법」 조기 제정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F1대회지원법(안)」은 대회의 추진 주체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회 개최 준비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민간이 참여한 대회운영기업은 조직위원회의 승인 하에 F1 대회 개최에 필요한 일정 수익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는 F1 대회가 전 세계인의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1대회지원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 및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F1 대회 개최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 관광산업의 활성화, 자동차 관련 산업의 질적 향상 등 국가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활동을 전개하여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F1대회지원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F1대회지원법」이 제정되면 F1 대회는 국가적 행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1대회준비기획단 단장 윤진보, 운영기획담당 강효석
담당자 : 양국진, 박호, 최동훈, 김은진

4-2. F1 경주장 조성사업 본격 추진

가. F1 경주장 건설 규모

F1 경주장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난전리 일원 간척지 1,853천㎡의 부지에 F1 대회 운영법인(KAVO)이 경주장 건설사업비 약 4,000억원을 조달(자본금 600억원, PF 3,400억원)하여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물로서는 트랙, 그랜드스탠드, 피트 및 패독, 컨트롤 타워, 팀빌딩, 주차장, 공원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나. F1 경주장 설계 추진

2006년 7월 세계적 F1 서킷 전문설계사인 독일 툴케(Tilke)사에서 경주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경주장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06년 9월부터 독일 툴케사와 국내 설계전문업체인 도화종합기술공사, 정림건축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2007년 8월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설계를 완료하였다. F1 경주장은 반시계방향 주행의 5.546km의 트랙, 용도에 따라 2개로 변형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서킷, 세계 최고의 수준인 1.19km의 직선구간, 최고속도 320km, 그랜드스탠드 16,000석의 특징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설계되었으며, 건축물은 한국적 전통미와 남도의 정취를 반영(엔트런스빌딩 : 전통기와와 성곽의 조화, 그랜드스탠드 : 한옥처마 등)하여 그 자체로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 F1 경주장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경주장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우리도는 최단기 행정절차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2007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암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고 2007년 7월 24일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결과 F1 경주장 부지인 정부 소유 간척지에 대한 사용 승낙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8월 16일에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제반 협의 완료 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였다.

또한,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구역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개발계획 승인신청 관련 최소면적 기준에 대한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하여 법령해석 심의회(2회)를 개최하였으며,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기업복합도시과) 및 법제처(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심의결과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라. F1 경주장 건설공사 착수

본격적인 경주장 건설공사 추진에 앞서 2007년 7월 31일 지역주민, 대회운영법인 관계자, 그리고 지역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1 경주장 건설공사 안전지원제를 지내고 곧바로 공사장 진입도로 개설, 표토제거, 현장사무소 건축 등 준비 공정에 착수하였다.

이후 2007년 12월 (주)금광기업에서 F1 경주장 건설공사 연약지반개량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말 현재 토목공정은 40%이며

2009년 3월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상반기에 F1 경주장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F1대회준비기획단 단장 윤진보, 시설지원담당 안병욱
담당자 : 박봉수, 김현경, 정은영

4-3.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가.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먼저, 2010 F1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과 공직자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청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본청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 때마다 식전에 F1 홍보 동영상교육을 실시하여 F1 홍보전도사로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심어주었으며, 위생업, 숙박업, 운수업 종사자 등 4,5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F1 대회에 대한 이해 제고와 홍보마인드 형성에 힘썼다. 아울러, 설날, 중추절 등 민족 대명절에는 주요 톨게이트 주변에서 귀향객을 대상으로 2010 F1 홍보활동을 펼쳐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둘째, 범국민적 공감대확산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F1홍보 이벤트를 다수 개최하였다.

먼저, 전국체전(여수), 지방자치경영대전(서울), 경기국제관광박람회(서울), 전국생활체육대회(울산) 등 약 30회에 걸쳐 전국단위 대형 행사에 참여하여 2010년 F1 대회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2008년 5월 광주에서 국내외 최고의 슈퍼카와 F1 머신이 전시된 'F1 & 슈퍼카 페스티벌'에 약 4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감으로써 2010 F1 대회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8년 10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 최초로 실제 F1머신이 도심을 질주하는 F1 머신 데모런 행사를 서울과 광주에서 개최하여 내외신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BMW 팀의 닉 하이펠트 선수가 직접 운전묘기를 보여줌으로써 3만여 관객을 열광시켰다. 또한 F1 성공기원 도민걷기대회가 약 2,500여명의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15일 순천시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셋째, F1 대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언론홍보활동을 펼쳤다.

먼저, 2008년 2월과 10월 2회에 걸쳐 KBS 한국방송과 KBC 광주방송 공중파방송을 통해 F1 특집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함으로써 F1 대회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08년 8월 한 달 동안 지역 라디오 공중파를 활용하여 “2010 F1 집중홍보의 달”을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울시내, 인천공항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옥외전광판광고를 실시하였다.

넷째, 오늘날 눈부신 인터넷과 IT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젊은 층의 지지 확보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2007년 개통한 F1 홈페이지를 2008년 F1 시즌 개막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네티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였으며, 대형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해 F1 홈페이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으며, F1 성공기원 사이버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네티즌의 지지와 열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였다.

다섯째, F1 대회의 홍보를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 및 자발적 서포터즈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모터스포

츠 전문가를 모시고 F1 코리아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2010 F1 대회
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0년 F1 대회 관련소식을 전파하는 '사이버기자단'으로
서, 인터넷 투표 및 지지 댓글 작성 등 F1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온·오프라인 지지 활동을 선도하는 자발적 지지그룹인 포사모(포
물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전국에서 약 7,500 여명이 가
입하여 활발한 F1 홍보활동을 펼쳤다.

다. 향후 추진계획

'08년의 홍보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2009년에는 보다 공격적인
홍보를 펼쳐 자동차회사, 스포츠 마케팅 관련 기업, 언론 등 F1 관
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2010 F1 대회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0 F1 대회 전시 이동 홍보관을 연
중 운영하여 전 국민에게 F1대회를 널리 알릴 예정이며, 2008년 개
최되어 큰 주목을 받았던 데모런 이벤트를 보다 큰 행사로 개최하
는 등 차별화되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F1에 대한 전국적인 개최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TV 다큐 제작, TV 스포츠 광고, 캠페인 등 국민의 관심제고
를 위해 공중파 방송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펼쳐나가고, UCC 페스
티벌 등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수단도 새롭게 개
발해 나갈 예정이다.



F1대회준비기획단 단장 윤진보, F1홍보담당 김정완
담당자 : 이형동, 오홍록, 조영진

4-4 2010년 F1대회 준비체제 본격 돌입

가. 대회지원담당 신설

2010년 F1 대회의 대회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대회지원담당을 2008년 8월 1일자로 F1대회준비기획단내에 신설하였다. 대회지원담당의 신설은 2010 F1 대회의 실질적 준비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 설치 전까지 지속적이고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해, 대회운영법인(KAVO)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008년도 중점 추진 업무를 조직위원회 설립 추진, 경기운영에 필요한 오피셜·마샬요원 양성 및 대회마케팅(티케팅 등)방안 강구, 유관기관 협력, 교통·숙박대책, 관광 상품 개발 등 실질적 대회 개최 준비와 경주장 사후활용 방안 마련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회 종합 실행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유관기관인 무안공항, 코레일, 항만청 등을 방문 업무협의를 하였고, 특히 대회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통·숙박대책 및 경주장 사후활용방안의 용역을 발주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원활히 대체하는 방안과 F1 경주장을 300일 이상 활용 국내의 모터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활용되어 지역사회 고용 및 소득 창출을 제공하는데 큰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력하였다.

나. 교통·숙박대책 및 경주장 사후활용방안 연구 박차

2010년 대회 기간 중 국내외 방문객의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3~4만대의 차량이 경주장에 진입하게 되며, 국내외 관람(광)객 20만명 이상이 지역을 찾을 것을 대비하여 교통 분산대책과 부족한 숙박시설의 공급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8년 10월 전문기관에게 교통·숙박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수차례의 워크숍,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대책을 착실히 준비하였다.

교통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F1 대회 기간 중 경주장 진입(주요)도로 및 정체 예상 구간 중심으로 교통량 조사 분석을 통한 교통 분산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항만 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용방안 및 관광 상품과 연계된 교통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숙박대책은 광주·전남권 숙박시설의 총량조사와 대회관계자 및 국내외 관광객의 숙박 총량을 예측, 교통과 숙박부분이 연계된 관광객 유형별 숙박시설 확보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기본자료를 충실히 구축하였으며 전남만의 특색인 한옥마을과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숙박시설 관광 상품을 개발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종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운영실태 분석 등 연구를 통해 모터스포츠 유치 및 경주장 사후 활용방안 강구에 노력하였으며, 수익성, 사회성, 공공성을 주요 컨셉으로 하는 F1 경주장 운영수익 방안 제고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방안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

다. 앞으로 계획

2009년부터는 오피셜, 마샬 등 경기운영요원 양성 프로그램 가동은 물론, 자원봉사, 의료, 경찰 등 인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등 대회개최를 위한 실질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숙박대책을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운영을 하는 한편, 전 도민 친절운동 전개 등으로 2010년 F1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F1대회와 우리지역의 관광여건을 최상으로 조합하여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 우리지역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 컨셉 마련과 무안공항 등 지역 SOC 활성화 방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F1대회가 단순히 모터스포츠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전남도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F1대회준비기획단 단장 윤진보, 대회지원담당 윤진호
담당자 : 강경문, 정경선

4-5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F3 대회 유치

가.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모터스포츠산업은 국민소득 2만불 초과와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레저행태의 변화에 따라 그 수요가 급격히 증대될 것이며, 특히 2010년 전남에서 개최되는 F1 경주대회를 통해 국내자동차메이커들의 성능 향상 및 이미지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리 도를 미래 신 성장산업인 모터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162,911㎡부지에 모터스포츠 R&D센터(연구개발동, 시험인증동, 전시교육동)와 모터스포츠 산업단지(튜닝단지, 벤처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특히 튜닝부품 실차테스트 및 전문드라이버 양성 실습장은 인근에 조성된 한국 F1 경기장을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7년 12월 대통령공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 9월 지식경제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2008년 11월 기획재정부 최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08년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중이다.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초기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수요창출의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내시장 개척 단계로 이동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국부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나. F3 대회 유치

F1 대회와 함께 세계 3대 모터스포츠 대회로 분류되는 F3 대회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매년 11월에 F1 경주장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F3 유치협약을 2008년 11월 1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전라남도 이상면 정무부지사, Barry Bland F3조직위원장과 수많은 언론인이 참여하여 F3 대회 유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F3 대회는 F1 대회와 마찬가지로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직접 관장하는 공인레이스로 F1, GP2와 함께 포뮬러 자동차경주의 주축을 이루는 종목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F3 대회를 거친 드라이버들이 대거 F1대회에 진출하면서 국제적 레이싱 스타를 양성하는 등용문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대회이기도 하다.

F3 대회 유치로 F1 경주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남을 모터스포츠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도는 앞으로도 세계적 규모의 국제 대회와 함께 국내대회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F1대회준비기획단 단장 윤진보, 운영기획담당 강효석
 담당자 : 양국진, 박호, 최동훈, 김은진